“삼릉곡 약사불, 석굴암 대신해 일제 반출”

아라키 연구원, ‘경주 남산 불교문화재’ 학술대회서

일제 의해 경주 남산 첫 조사
‘석굴암 경성 이전’ 실패하며
조사된 삼릉곡 약사불상 반출
1915년 열린 공진회서 전시
‘청와대 불상’ 반출 동일 이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남산은 불국토다. 곳곳에 불상과 사지들이 자리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경주 남산의 불적을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1902년 건축학자 세키노 다다시에 의한 조사를 단서로 1906, 1909년에 걸쳐 일본인 학자들의 조사들이 이어졌다. 경주 남산에 대한 일제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건 1923년이지만, 이미 모로가 히데오 · 고다이라 료죠 등 경주 지역 일본인 유지들이 남산 불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경주 남산의 위상 변화는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하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이 1915년 당시 경성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 5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이하 공진회)에 출품돼 미술관 중앙홀에 전시되면서부터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은 공진회 전시를 위해 반출된 이후 계속 서울에 남게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어떻게 발견되고 반출됐는지에 대한 사실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

심지어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에 대해 내부관계자인 오바 쓰네키치 조차 “박물관의 미술품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원위치의 환경과 함께 있음으로써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는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였다. 내부에서도 불편한 시선이 있었던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에는 어떤 막전막후가 있었던 것일까.

경주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아라키 준 경북대 인문학술원 연구원은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 이면에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초대 조선 총독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 이 있었다고 봤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 중인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사진 왼쪽) 오른쪽 사진은 공진회 중앙홀에 안치된 경주 남산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의 모습. 옆에 감산사 석불입상 2구가 협시로 들어섰다. 모두 석굴암을 모티프로 조성된 것이다.

아라키 연구원은 12월 1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한국미술사학회가 경주 남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을 기념해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반출 과정과 이유를 추적했다.

아라키 연구원에 따르면 세키노 다다시가 1911년 경주 남산을 조사하며 남긴 야장에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며, 1914년 10월 매일신보에는 삼릉곡 약사여래좌상과 감산사 석불입상 2구를 ‘경주 석굴암 석조조각의 모형’ 으로 공진회에 전시한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실제, 공진회 중앙홀에는 ‘삼릉곡 약사여래좌상’ 이 안치됐고, 좌우 협시로 감산사 석불입상 2구를 배치됐다. 중앙홀 양측 벽에는 석굴암 부조상 14체의 등신대 석고모형이 설치됐으며, 천장에는 천인상을 그렸다. 즉, “석굴암을 기본 모티프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을 본존불로 안치한 것”이다.

왜 일제는 경주의 불상들을 반출해 경성에 석굴암을 형상화하려고 했을까. 아라키 연구원은 데라우치 총독의 행보에 주목했다. 데라우치 총독의 조선사관은 ‘일선동조론’ 과 ‘조선정체성론’ 으로 귀결된다. 그는 “고대 일본과 관련해 신라왕조는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이룩했으나 이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자립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조선왕조는 국력이 쇠퇴해 멸망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라키 연구원은 “데라우치 총독에게 한일병합은 조선이 일본과 뿌리를 같이 했던 고대로 회귀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하는 기획이었다. 신라 미술 최고봉인 석굴암을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에 안치하는 것은 그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시각화하는 작업”이라며 “데라우치 총독의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은 그의 제국주의적 야망서 착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데라우치는 조선왕조 상징인 경복궁을 해체하고 그곳에 석굴암을 고스란히 옮겨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할 것을 계획했지만,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차선책으로 공진회 미술관을 석굴암처럼 꾸민 것”이라면서 “이때 본존불로 안치된 것이 바로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라키 연구원은 현재 ‘청와대 미남불’ 로 잘 알려진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도 공진회 석굴암 본존불 후보로 반출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해당 불상의 반출 시기가 석굴암 경성 이전 계획 무산 시기와 일치한다”며 “데라우치 총독은 삼릉곡 약사여래좌상의 경성 반출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경성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 남산 불교문화재, 어제와 오늘’ 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제3공화국과 경주 남산(강희정, 서강대)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경주 남산(이명옥,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 불적의 형성과 성격(김동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남산의 통일신라 시대 불교 석경(하정민, 서울대) 등이 발표됐다.

불교교육聯, 언택트로 학생수련회 연다

교법사단과 공동으로… 28일 종립학교서

전국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청소년 불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만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교육연합회(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가 주최하고 조계종 전국교법사단(단장 백미나, 평택 청담고 교법사)이 주관하는 ‘2020학년도 불교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임원수련회’ 가 12월 28일 전국의 26개 종립학교에서 언택트 형식으로 열린다. 이번 사업은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이 후원한다.

이번 수련회에는 불교학생회 지도자 및 교법사 130여 명이 참여하며, ‘하이(Hi) 화쟁’ 을 주제로 한 협력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 화쟁은 조계종 화쟁위원회와 교법사단이 공동으로 참여해 종교수업 용도로 만들어 지난 10월 발간한 교재다. 이 교재는 갈등 개념 알기와 해결 방법, 갈등 조정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어 교법사단장 백미나 교법사의 리더십 특강과 만들기 수업, 불교학생회 활동을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원격 수업 프로그램인 구글 클래스룸에 관련 내용을 탑재해 각 학교에서 수업 가능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 김세연 동대부중 교법사가 비즈만다라 만들기를 콘텐츠로 제공한다. 미리 제공한 키트를 활용해 완성된 만다라는 부처님 전에 올려 기도하고 사진을 찍어 제출한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 파라미타를 소개합니다’ 를 통해 각 종립학교 소개 경연도 펼쳐진다. 12월 20일까지 108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수상작을 선정, 수련회서 감상하도록 한다.

교법사단은 “종립학교 지도자 뿐만 아니라 회원들도 언택트로 진행되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다양한 청소년 지도자가 탄생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공교육 다양화, 불교가 함께 할 것”

원행 스님, 조희연 교육감 예방서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공공교육 다양화에 불교계가 함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비용 문제로 전통문화 체험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2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인간과 자연이 상호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이 크게 다가온다. ‘생태전환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강화해 교육을 하려고 한다”면서 “관련해서 불교적인 지혜를 참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행 스님은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치중하다 보니 교양적인 부분은 뒤떨어져 있다고 본다. 자연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들을 잊고 산다”면서 “ ‘채식선택제’ 를 학교 급식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찰음식의 요리법을 영양교사들에게 연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단적으로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기회를 많이 주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우웃따라 스님 등 불교활동가 지원

12월 9일 지원금 전달식

올해 불교활동가 지원 대상자에 미얀마전법선원 주지 우웃따라 스님과 이준형 바라오페라단 기획실장,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 정란 자비신행회 사무국장이 선정됐다.

불교활동가지원기금(운영자 동출)은 12월 9일 제17회 불교활동가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동출 스님은 이날 우웃따라 스님과 이준형 기획실장, 박재현 소장, 정란 사무국장에게 각 3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은 이날 지원금을 전달받고 “불교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을 회복시키는 데 지원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동출 스님은 “여러 스님과 불자들의 도움으로 불교활동가 지원이 17회를 맞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현장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활동가 여러분들이 모두 부처님”이라고 격려했다.

이중표 붓다나라 대표는 축사를 통해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가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불교활동가 지원기금이 불교활동가들의 활동이 더욱 확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불교운동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활동가지원기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토대로 활동하는 불교활동가들을 격려 ·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송지희 기자

서울권 사찰 법당 신도 상주 금지

조계종 총무원 지침 시달
오는 12월 20일까지 시행
서울권 법회 ‘비대면’으로
타지역은 20% 인원 제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서울 지역 사찰에 신도들의 법당 상주를 금지시키는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원행)은 12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찰 지침’ 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사찰들은 12월 20일까지 법당에 신도들의 상주가 금지되며 참배만 가능하다. 법회 등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법당에는 스님들만 참석해 법회와 기도를 봉행하도록 했다.

서울 이외 지역 사찰들에도 방역 지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 권역 이외의 사찰들은 법회 등 대면행사 시 개인 간격 2m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수용인원을 실내공간의 2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조계종은 “지자체별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우선 준수해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전 사찰에 공통적으로 △사찰 내 모든 인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찰 주관 모임 중단 △신도 및 외부인 공양 중단 △공용 음수대 운영 중단 △사찰 종무원, 상주대중 시차 출퇴근 · 공양 및 고위험시설 출입금지 등의 지침을 시달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전문서점, 새 이름 ‘향전’

9일 공모 선정결과 발표

조계종 출판사(대표 남배현)가 운영하는 불교전문서점이 새이름 ‘향전’ 으로 재도약에 나선다. ‘향전(香田)’ 은 공모전을 통해 최종 선정된 명칭으로 ‘향기로운 밭’ 을 의미한다.

조계종 출판사는 12월 9일 “불교전문서점 새 이름이 ‘향전(香田)’ 으로 최종 결정됐다”며 “개원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명칭으로 대중과 만나게 된 만큼, 앞으로 일반적인 서점을 넘어선 불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전문서점은 2009년 처음 문을 연 이후 11년간 특별한 상호명 없이 운영돼 왔다. 이에 조계종 출판사는 새로운 명칭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 최근 새이름 공모전을 진행했다.



불교전문서점 내부 전경.

공모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총 200여 개 작품이 응모됐다. 도반 HC 대표이사 지현 스님과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 조계종 출판사 편집위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불교전문서점의 정체성과 참신성, 의미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삼척 천은사 주지 동은 스님의 ‘향전’ 을 최종 선정했다.

‘향전’ 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롯이 담긴 불교서적을 통해 세상을 보다 더 향기롭게 만드는 텃밭이 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차선작으로는 달마재, 만다라, 선재, 풍경소리, 나비 등 4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조계종 출판사는 “올해 개원 11주년을 맞은 불교전문서점 ‘향전’ 이 일반적인 서점을 넘어선 ‘불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점 내 다목적 회의공간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회의 공간은 모든 불자들에게 개방해 기자간담회, 세미나, 불서읽기 모임, 카페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2031-2070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본지 ‘코로나&불교’ 기자상 기획상 수상

불기협, 7일 시상식 개최

본지가 보도한 ‘코로나&불교’ 가 한국불교기자상 기획 · 해설보도 부문을 수상했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신성민)는 12월 7일 서울 조계사 설법전에서 ‘2020년 한국불교기자상 시상식’ 을 개최했다.

이날 본지 신성민 · 노덕현 · 송지희 현대불교신문 기자의 ‘코로나&불교’ 시리즈 보도는 기획 · 해설부문을 수상했다. 해당 보도는 코로나19 창궐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한국불교계의 현재를 돌아보고 이를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에는 ‘코로나19, 채식을 돌아보다’ 를 기획연재 한 윤호섭 BTN불교TV 기자가 수상했으며, 기획 · 해설부문은 여태동 불교신문 기자의 ‘법정 스님 열반 10주기 특별기획- 무소유의 향기를 찾아서’ 가 공동 수상했다. 취재보도부문은 김내영 법보신문 기자의 ‘불교계의 차별금지법 인식과 제정 노력’ 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재완 기자



본지 송지희 기자(사진 오른쪽)가 불교기자상 기획 · 해설부문을 수상하고 있다.

재한 이주민에 마스크 1만장 지원

조계종 · 마주협, 9일 전달식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불자들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방역 마스크를 지원했다.

조계종과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상임대표 호산)는 12월 9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재한이주민법당 및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마스크 1만 장을 전달했다. 애초 조계종은 매년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가 진행해 온 ‘이주민 어울림한마당’ 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방역마스크 지원으로 변경했다.

송지희 기자